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14

2020 년 12 월 27 일

커네티컷에서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년을 살면서, 태풍이나 강풍 그리고 폭설등으로 전기 불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기 불이 나가면 정신이 나가, 정신이 없지요? 전기 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텔레비도 못보고, 음식도 만들어 먹지 못하고, 인터넷도 끊어지고, 일상 생활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이고, 빛이 없으면 불안하고, 빛이 없으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빛이 없으면 초조해 집니다. 빛이 없으면 혼돈입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보면, 2 절에 말씀에,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싸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3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4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5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 주신 것을 이해하고 외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또 그의 서신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의미 그리고 목적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어둡고 공허합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 상실이고, 목적 상실입니다. 빛이 없으면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의미 상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

스마트 폰을 갖게 된 후 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진을 자주 찍는 것입니다. 따로 사진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전화기로 사진을 찍게 되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 전화기에는 1500장이 넘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중에, 잘 찍은 사진은 사진을 담고자는 인물이나 사건,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진은 빛이 있어야 찍는 것이라고 하면서, 잘 찍었다는 사진은 빛을 얼마나 적절하게 받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조명만 잘 맞게 되며는 아름다운 멋진 사진을 찍게 됩니다.

빛만 있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빛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탄절 아침에 함께 읽은 요한 일서 1 장 말씀에, 요한 일서 1 장 7 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빛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빛은 의심의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은 두려움이라는 어둠도 쫓아냅니다. 빛은 불안의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은 무질서의 어둠도 쫓아냅니다.

빛이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십니다. 그 빛은 진리입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 빛은 소망입니다.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 빛은 사랑입니다. 자비와 포용으로, 원수 마저도 형제 자매로 품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의 하나 소개합니다.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208 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를 작사한 신앙의 선배는 어떤 변화가 자기의 삶에 일어났는 지를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후렴 >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

3.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내 삶에 오시면..

1.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2. 참 빛을 찾게 됩니다.
3. 망령된 행실을 끊습니다.
4. 자유함을 얻습니다.
5. 소망이 넘칩니다.
6. 의심의 구름이 걷힙니다.
7. 밝은 빛을 봅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던 어두운 시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젊은 여자 그리스도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의 의하여 창문도 없는 어두운 작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꼬여있는 간수가 감옥 전청에 있는 전구를 총부리로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담배 라이터를 켜서, 이 교우 앞에다가 갔다 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 어떻게 할거냐?” 이 때, 이 교우가 대답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

한 시인이,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깔릴 때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가로등이 하나 둘씩 켜지는 것을 보고는, 어둠 가운데 하얀 구멍을 하나씩 생기게 하는 것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참 시적이고, 재미있는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에 하얀 구멍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이름 중에, 등대 교회가 있습니다. 참 성경적으로 교회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로등 교회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히는 가로등 교회.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 교회. 우리의 작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어두운 세상에 하얀 구멍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가로등은 움직이는 가로등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처럼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코비드 유행병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이 곳저 곳에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특히,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종 차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도요한 요한일서 2장에서, 금요일에 함께 받은 말씀입니다. 빛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2:9)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빛의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면, 새 해가 밝아오듯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찾아 옵니다.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쌓여 눌러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빛, 소망의 빛으로 밝혀질 어두운 곳에 살면서 가로등 불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빛 품고, 주님의 빛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하시며,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다짐하며 2021 년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